

이케바나

꽃꽂이의 전통과 창조

이케바나란 무엇인가 ?

‘이케바나’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꽃꽂이 예술”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케바나’의 소재는 새로 자른 나뭇가지, 넝쿨, 잎, 풀, 과일, 과일, 씨앗 및 꽃뿐만 아니라 시들고 마른 식물들도 포함한다. 사실 모든 자연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이케바나’는 유리, 철 및 플라스틱도 사용한다. 일본의 전통예술의 하나로써 ‘이케바나’는 상징적 언어와 장식적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자연의 빨리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과 나뭇가지는 시간의 차원을 창조의 영원한 일부분으로 만든다. 재료들 간의 관계, 배치하는 형태, 용기의 크기, 모양, 무늬, 용적 및 색깔, 전시되는 장소와 행사의 종류는 모두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500년 역사 동안 집안 장식에 쓰인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전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광범위한 풍경과 혁신적인 조각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종류가 존재해 왔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현대 작품들과 함께 전통적인 형식도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카도’ 및 꽃의 길이 라고 하는 ‘이케바나’ 훈련은 계절과 시간 그리고 변화의 흔적에 대한 명상의 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케바나’의 종교적인 기원과 탄생, 성장, 소멸 및 재생의 자연 순환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케바나’에 깊은 영적인 반향을 제공한다.

기원과 발전

일본의 자연경관과 고대 농경생활의 다양성



꽃꽂이

꽃꽂이는 여가 시간에 연습하는 예술적인 기예처럼 보인다. (사진제공 : AFLO)

은 ‘이케바나’가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6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불교는 ‘이케바나’가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불교의 영향으로 부처와 죽은 자의 영혼에 꽃으로 된 제물(‘구게’)을 바치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 제물은 세 개의 줄기의 단순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17세기 초반 그것은 문자적으로 “서 있는 꽃”이라는 의미의 ‘릭카’라고 하는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오하라 학파

그림의 작품은 풍경을 묘사한 작품의 예로 넓고 얇은 용기('스이반')를 사용한다. 연꽃만 사용하여 여름에 멀리서 바라보는 연못을 묘사하였다. (사진제공 : 오하라류)



이 양식은 이케노보 학파의 불교 승려들이 창안하였다. 이 정교한 예술 형태에는 긴 청동으로 된 꽃병이 사용되었으며 고난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었다. 하늘이나 진리를 의미하는 중심 가지는 일반적으로 비대칭으로, 중심의 수직축으로 돌아오기 전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구부러진다.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와 장식적인 기능이 있는 그 밖의 많은 가지는 상상속 구체의 중심인 중앙에서 뻗어나온다. 전체적으로 '릭카' 작품은 풍경의 이미지를 통해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소우주와 같다. 비대칭, 상징성 및 공간의 깊이와 같은 중심적인 특징은 이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릭카'와는 달리 문자적으로 "차 꽃"을 의미하는 엄숙한 '차바나'는 16세기 차 의식('차노유')에서 유래하였다. 작은 용기에 한 두 송이의 꽃과 가지들을 넣은 '차바나'는 "안으로 던지다."를 의미하는 '나게이레'라는 자연적인 양식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긴 꽃병과 몇 가지의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자연미의 단순하고 시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섬세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교한 기술, 큰 스케일, 상징성 및 고정된 양식을 강조하는 한편, 소재 자체가 주는 자연스러움, 단순함, 함축성과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이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앞으로의 예술적인 혁신을 주도할 것이었다.

에도 시대 (1603-1867) 동안, 일본은 내부적인 평화와 안정적인 경제적 번영을 즐겼다. 한때 불교승려와 황족과 귀족들이 독점한 분야였던 '이케바나'는 '사무라이'나 부유한 상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이 시대 동안 '릭카' 양식은 고정되고 형식화되었으며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꽃"이라는 의미의 '세이카'나 '쇼카'(모두 동일한 한자로 쓴다.)라고 불리는 더 단순한 양식이 나타나 많은 인기를 누렸다. 상당히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카'는 비대칭적인 또는 비스듬한 삼각형에 근거한 세 개의 나뭇가지 구성을 사용하였다. 많은 새로운 학파가 그들 자신의 형식을 장려하였지만 구성의 중심이 되는 세 개의 나뭇가지는 '텐'(하늘), '치'(땅) 그리고 '진'(사람)으로 각각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변형들이 가장 근대적인 학파를 포함하여 모든 '이케바나'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중국의 학자와 미술가들의 감수성을 반영한 지식인 배열('분진 - 바나')의 출현이었다. 일본의 '분진 - 바나' 배열은 '차바나'에서 발전된 '나게이레' 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분진 - 바나'는 개인 표현의 형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배열은 다실의 엄격함이나 '릭카'나 '세이카'의 정형성과는 상당히 다른, 정통에 따르지 않고 격식이 없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중국의 영향으로 새로운 풍부한 색감과 문자적인 음영이 더해졌다.

현대의 '이케바나'

메이지 시대 (1868-1912)를 시작으로 서구 문화가 개방됨에 따라 국민의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케바나'에서도 문자적으로 "쌓여있는 꽃"이라는 의미의 '모리바나'라고 하는 양식을 오하라 학파의 창시자인 오하라 운신 (1861-1916)이 창안하여 예술계에 완전한 혁신을 가져왔다. 모든 전통 양식들에서는 소재들이 용기로부터 밖으로 뻗어 나오기 위해 하나의 장소에 모여있었던 반면, 오하라는 문자적으로 "물 웅덩이"를 뜻하는 '스이반'이라는 넓고 얇은 용기의 넓은 표면 위로 잘린 식물들을 배열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지대를 사용하였다. 이 양식은 수입된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과는 맞지 않았다. 이 양식은 또한 상징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런 방식으로 자연을 묘사한 '사케이'라고 하는 풍경화 양식을 창조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혁신자는 '모리바나'를 사용하고 그의 작품을 단순히 "장식적이다"라고 묘사한 아다치 초카 (1887-1969)이다.

많은 현대 학파들이 나타나면서 혁신은 계속되었다. 소게츠 학파의 창시자인 테시카라 소후 (1900-1979)는 '이케바나'를 자유

이케노보 학파

이 꽃꽂이 학파는 15세기에 이케노보 센케이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학파는 현존하는 학파 중에 가장 오래 되었다. 그림은 현재 이케노보 학파의 대가인 이케노보 센에이의 작품이다. (사진제공 : 이케노보)



소게츠 학파

소게츠 꽃꽂이는 다양한 모양의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 커다란 작품의 제목은 "乾坤春" ('간곤춘')으로 소게츠 학파를 창시한 데시가하라 소후의 작품이다. 폭이 약 10미터로 유목과 등나무 덩굴도 사용하였다. (사진제공 : 소게쓰 회/후지모리 다케시)



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장려해야 하는 현대 예술로 승격시켰다. 전후 시대에 아방가르드 작품 또는 '젠에이바나'는 추상적인 조각형식 또는 초현실적인 방법을 혼합하고 사용하는 소재의 범위와 작품의 크기를 넓혀 '이케바나'의 표현력을 광범위하게 확장시켰다. 또한, 이케노보와 같은 전통적인 학파는 그들의 전형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현대적 감각의 '릭카'와 '세이카'를 고안하면서 '모리바나'를 포함하여 더욱 새로운 방법을 그들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현재는 이케노보, 오히라 및 소게츠의 세 가지 큰 학파들이 각각 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유치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천 개의 크고 작은 학파들도 존재한다. 주요 학파들은 전 세계에 지부를 설립하고 학습 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많은 학파를 대표하는 보호조직 (umbrella organization)인 이케바나 인터내셔널이 1956년 도쿄에 설립되어 세계 곳곳에 '이케바나'를 보급하였다.

특정한 학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일반인들도 '이케바나'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케바나'는 일본의 일상생활에서 친밀한 부분이 되었다. 일 년 내내 '이케바나'로 집안을 장식하고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는 특정한 소재를 사용한다. 영원을 상징하는 상록수는 신년에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며 전통적으로 청년의 유연함을 상징하는 대나무와 존경스러운 노년을 상징하는 꽃이 핀 살구나무 가지와 함께 사용한다. 3월 3일, 여자 아이의 축제로 알려진 인형 축제 (히나마쯔리)에는 꽃이 핀 복숭아 가지를 전통 인형과 함께 장식한다.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일본의 붓꽃은 5월 5일 어린이 날에 사용하며 7월 7일 다나바타, 별축제를 위한 장식의 일부로 대나무를 사용한다. 전형적인 가을 소재인 일본의 팜파스 풀은 전통적으로 9월에 달을 보기 위해 ('츠키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장식한다.

기본적인 방법과 기술

식물들은 가능한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식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줄기의 끝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끊어거나 태우는 방법도 있으며 다양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줄기의 끝을 물에 담근 채 잘라 ('미즈기리') 즉시 사용하는 것이다. 시들해진 꽃과 잎의 생기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그것들을 물에 담근 채 자르고 가지는 적어도 30분 동안 물 속에 담가둔다.

대부분의 현대 '이케바나'는 '모리바나'와 '나게이레'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다. '모리바나'가 얇은 용기에서 바늘 지지대 또는 '켄잔'을 사용하여 장식하는 반면 '나게이레'는 소재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긴 꽃병에 장식한다.

'켄잔'을 사용할 때는 두꺼운 가지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잘린 끝을 길게 벌려 바늘 지지대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꽃과 가지가 부드러운 다른 소재들은 수평으로 자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위쪽을 향하게 직접 바늘에 꽂아 앞뒤 원하는 각도로 기울인다. '켄잔'의 각각의 바늘보다 더 가는 풀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다른 짧은 추가적인 소재들의 끝 부분을 함께 묶어 두껍게 만들어 장식하기도 한다.

긴 꽃병에 장식하려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고정해 묶는 방법 ('오리도메')을 활용한다. 줄기는 용기의 입구에 넣고 구부러진 부분은 안쪽 표면의 반대방향으로 배치하며 줄기의 끝 부분은 화병의 바닥에 닿게 하기도 한다. 줄기가 두꺼운 꽃을 사용할 때는 스스로 지탱하는 방식 ('기리도메')을 쓴다. 가로 방식 ('요코 - 와리도메')에서는 가지의 끝을 수평

으로 쪼개고 올바른 각도로 받침을 삽입한다. 가로장은 용기의 안쪽 표면과 잘 맞아야 한다. 수직 받침 (‘다테-와리도메’) 을 사용하려면 줄기의 끝을 수직으로 쪼개고 받침을 쪼개진 끝 안쪽에 삽입한다. 받침을 삽입한 줄기의 끝은 용기의 안쪽 표면이나 바닥에 닫게 된다.

적절한 용기의 선택

원칙적으로 어떤 것이든 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청동이나 도자기 화병, 칠기, 잘린 대나무 및 말린 호리병 박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용기는 작품을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넓고 얇은 접시 (‘스이반’) 를 사용할 때 물 표면의 반사와 여름에 물이 주는 시원한 느낌과 같이 물 표면을 미묘하게 하는 것은 작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및 다양한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는 현대 ‘이케바나’ 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투명한 유리화병에 장식할 때는 용기 내부에 보이는 작품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가 무엇이든 작품의 바닥은 깨끗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긴 화병을 사용할 때는 소재가 입구 전체에 가득 차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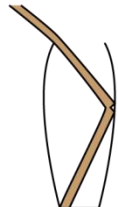
자연미의 강조

어떤 예술이든 경지에 이르려면 숙련된 스승으로부터 오랜 시간 훈련받아야 하듯이 모든 학파의 강사들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다. 먼저,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하는 것이 작품을 위한 출발점이다. 일단 식물이 잘려 자연 (혹은 온실) 에서 제거되게 되면 독특한 특징을 가진 구성을 위한 소재가 된다. 소재들을 관찰할 때는 매혹적인 세부정보보다는 전체의 형태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백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꽃이 아닌 전체의 가지와 특히 잎이다. 꽃은 원래의 위치에서 떼어 놓을 수도 있고 전체의 디자인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다시 붙일 수도 있다. 가지를 구부리면 만족스러운 곡선이 생길 수 있지만 또한 구부러진 가지를 펼 수도 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이며 가지를 치는 것은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체리나 자두 혹은 복숭아 가지에서 꽃을 제거하면 선이 드러날 뿐 아니라 남아있는 꽃들의 아름다움도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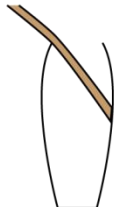
모든 자연 소재는 선, 표면, 색깔 혹은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넓은 잎은 힘 있는 표면이 있지만 선을 나타내기 위해 측면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모든 꽃들은 특정한 방향을 향하는 ‘얼굴’ 이 있다. 꽃을 장식할 때는 관찰자를 바라볼 것인지, 옆면을 보일 것인지, 관찰자로부터 돌아선 쪽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꽃들은 주로 잎과 함께 사용하지만 붓꽃이나 수선화의 잎은 구성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종종 줄기에서 뜯어내어 더 좋은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꽃에 다시 붙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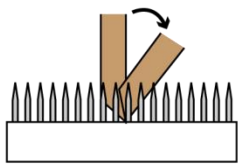
자르기: 물 속에서 줄기를 다시 자른다.



꺾어 꽃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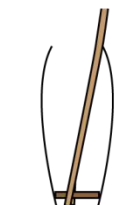
잘라 꽃기



꽃기: 바늘 받침에 꽃을 때는 먼저 수직으로 꽃은 후 옆으로 기울인다.



갈라 꽃기 (수직)



갈라 꽃기 (수평)

일본 꽃꽂이의 기본